

## 답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이다

성경말씀: 뱀전2:9

요즘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시간, 김남준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뱀전2:9.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존재, 사명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 왕가의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 사역 제사장, 거룩한 민족(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 특별 소유 백성(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막 살지 않는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위치 혹은 신분

앞으로 3번에 걸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가?

김남준 목사님의 글 132-139쪽 파란색 부분,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이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사명 혹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뱀에 의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은 창조 세상에서 발생

그러나 그 근원은 하늘에 있다.

이 반역의 목표: 아담과 이브의 멸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멸망

인류의 역사: 반란군들이 세력을 확장하여 인류를 거기로 끌어들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심

반란군들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날을 정하심,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주제

단번에 반란군 토벌 가능,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신비를 보일 필요(엡3)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다.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류 타락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심

전쟁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설명

사탄은 반란의 주동자, 아담과 이브는 하수인, 모든 인류는 부역자

예수님은 반란을 제압하는 토벌군의 대장, 그리스도인은 토벌군의 일원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가르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토벌군의 일원으로 부름 받은 것 무시(혹은 무지), 번영과 축복에만 매달림

이것은 경기장에 선수로 선발되어 트랙에 나가 서서는 뛰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

우리는 어떤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는가?

답후2:3-4

성경의 권고, 구원에 머물지 말고 싸움을 싸워야 한다(엡6:10-18).

우리는 달콤한 기독교, 유약한 기독교, 소비 중심의 기독교, 자기만족의 기독교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이 만들어 낸 변질된 기독교

구원은 자체가 소명(부르심)이다. 영적 싸움을 하는 소명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쾌락을 추구한다.

알렉산더 이야기

기원전 327년 늦은 봄, 알렉산드로스 대왕(Alexandros III, BC 356-BC 323)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 인도로 진격할 때였습니다. 행군을 시작했으나, 그의 부대는 생각처럼 용맹스럽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임이 둔해졌는지를 고민하던 알렉산드로스의 눈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무겁게 실은 수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새벽, 알렉산드로스는 자신과 측근들의 짐수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마케도니아 군사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노획물들로 인해 우리가 힘없이 행군하는 것이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탐욕을 버려라! 나와 함께 인도를 정복하러 가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수레를 불태워라!”

이때 일어난 일을 플루타르코스(Plutarchos, 46경-120경)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런 일은 결행하기보다 계획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소수의 병사들만이 분개할 뿐 대부분의 병사들은 환성을 울리며 필수품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갖고 남는 것은 손수 불태우거나 부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자 알렉산드로스는 열의와 자신감에 넘쳤다.”

구원받았으나 전의를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승리보다는 당장의 만족과 유익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겨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망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획득된다.

전쟁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전사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군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과 군인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

1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위치, 신분) 공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살아야 한다.

스파르타 전쟁 기록

그리스 중동부에 위치한 테르모필라이에 가면 해발 15m 남짓 되는 낮은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300>으로 유명해진 이 콜로노스 언덕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Leonidas I, BC 540경-BC 480)와 300명의 전사가 페르시아 대군과 격전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스파르타의 전사 300명은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300만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무려 7일 동안 저항하다 모두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후퇴를 몰랐던 그들은 무기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싸웠고, 무기가 부서지자 맨손과 이빨로 치열한 전투를 펼쳤습니다.

결국 단 한명도 살아남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끈질긴 저항 덕에 후방에 있던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 연합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 패배를 기점으로 페르시아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콜로노스 언덕에는 아주 오래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이런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여, 스파르타에 가면 전해 주오. 우리는 스파르타인답게 싸웠고, 그리하여 여기 이렇게 묻혔노라고.....”

가장 강한 군대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아는 군대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 잘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승리를 꿈꾸며 죄의 세력과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원한 승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발견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벰전2:9

### 영적 성장과 전쟁

요한일서 2장

성화는 영적 아기 상태에서 장성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요일2장에 보면 3단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신뢰하여 영적으로 탄생하여 기어 다니는 단계(요일2:12,13). 어린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군사가 되는 단계(13-14), 젊은이들

영적인 군사에서 베테랑 군사가 되어 믿음의 리더가 되는 단계(13-14). 아버지들

1. 초보 단계

요일2:11, 선하고 지혜로운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들이 용서되고 영원토록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을 아는 단계(12)

## 2. 영적 군사 단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14),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단계. 그러면서 저 사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단계(13), 이를 위해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그분과 연합하여 전쟁을 하는 것을 아는 단계

## 3. 리더의 단계

군사들을 이끄는 지도자, 멘토, 이를 위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단계 아버지를 깊게 앎(13, 14), 안다는 것의 의미

## 4.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2:15-17

이 세 단계는 엡6:10-19과 비슷하다. 6:10 참조

바울의 전신갑주(11) 필요

이유(12)

총 9개, 3세트, 각 세트에 3개씩, 각 세트가 세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된다.

아기 그리스도인

1.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 신뢰(14)
2. 의의 흥감(14): 영원무궁토록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인지
3. 그리고는 전도하고 알린다(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 15)

젊은 군사

1. 성숙해지면서 이 세 개의 무기를 더 잘 다루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 특히 신실하심을 더 확실히 신뢰하게 된다(신실함의 방패,16),
2. 하나님의 의에 대한 더 큰 이해, 사상을 바꾼다, 구원의 투구(17)
3.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 선포를 한다(17)

리더의 단계

두 세트 위에 더 강한 것들을 짓는다.

1.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18).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한다. 이때에 흥감과 방패가 그를 둘러싼다. 거북이를 생각하라. 딱딱한 갑옷, 흥감과 방패
2. 깨어 있다.
3.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신속한 발과 검을 사용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요한과 바울: 영적 싸움의 세 단계, 아기, 군사, 리더, 이것이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 아기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히512-14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혹은 왜 그렇게 되는가? 멘터와 목사들이 없기 때문

혹은 있어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 나는 후자가 더 많다고 믿는다.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만든다.

또 당사자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더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 결론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 자체가 소명이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

딤후2:3-4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며 그리스도의 기대하는 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가정, 교회, 국가